

지역 소식통

완주군 고품질 삼례 수박 첫 출하

고품질 완주군 삼례수박이 첫 출하됐다. 18일 완주군은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화)과 수박공선회가 삼례수박 첫 출하 기념행사를 삼례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박성일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및 국회의원, 수박공선회 회원, 농협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삼례농협과 공선회에서는 약 32ha(일반수박, 흑미수박) 400여동의 규모로 수박을 재배해 오는 7월까지 12브릭스(Brix) 이상으로만 엄선해 출하한다. 엄선된 수박은 롯데마트, 하나로유통(하나로마트), 호남물류, 온라인판매,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된다. 삼례농협 공선회의 수박은 참박대목으로만 재배해 당도가 좋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삼례농협에서는 올해 출하량을 지난해 920톤 대비 61.3% 정도 증가한 1천5백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 농기센터, 국가예산 점검·집행·실적 보고회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18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의 농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투자예산을 점검하고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5개과 26담당이 참석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주요사업들에 대한 부처 동향과 사업비 확보 가능성 및 문제점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지난 4월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의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신속집행 추진의 문제점 해소와 부서별 집행실적,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신속집행 대상 사업 총 1,151억원 중 60%(인 690억원)을 상반기 목표액으로 정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신속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심포항, 마리아 항만 전환

마리아 항만과 관광형 복합단지 조성... '진행 순조 해수부 '제2차 마리아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고시

김제시 (구)심포항 마리아 조성 계획이 해양수산부 '제2차(2020~2029) 마리아항만 기본계획'에 최근 반영·고시되었다. 김제시 민선7기 핵심공약사업인 (구)심포항 마리아 조성사업은 해수부의 입지조건검토 및 인문사회·자연환경 여건 등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거쳐 지난 2018년 9월 최종 후보지 12개소 중 전북에서 유일하게 해수부 내수면 마리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박준배 김제시장은 심포 마리아 조성사업이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아항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관광형 마리아 복합단지에 관한 토지용도 변경 사안을 매듭짓고자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이와 같은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 끝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김제시 심포 마리아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마리아 항만과 관광형 복합단지 조성 계획인 (구)심포항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자리 잡고 있어, 조수간만의 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표면이 잔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에 수상레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 여가활동으로 수상레저 활동(요트, 수상스키 등)이 급부상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 내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마리아 조성 사업의 전망이 밝아 보인다. 최하나 새만금해양관광은 심포 마리아



나 항만과 관광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역과 함께 하고, 산업이 성장하며 국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개발될 것을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새만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수목원 등과 함께 휴양 문화를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 레저힐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명품 휴양지로의 변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김제시 해양레저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최

코로나19 대응 위한 제2회 추경 등 심의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가 18일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오는 22일까지 5일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 17건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다.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 본심사를 진행,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친다. 앞서 김제시는 제1회 추경 대비 499억 원이 증액된 9,539억 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추경 주요 세출예산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41억원,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재난기초소득지원금 83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4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운주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역사회에 불어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제2회 추경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길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으며, 집행부에도 관련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 재확산되면서 관내에서도 추가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빈틈없는 방역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 의장과 의원들은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정회 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 중인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덕분에 헬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청년공동체 육성사업' 공모 실시

5월 29일까지 접수... 최대 1천만원 지원

완주군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사업은 '청년완주 JUMP-UP 프로젝트'에 담긴 일자리분야 실행과제로서 청년공동체 발굴·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청년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1차 공모로 2개 공동체(완주청년마을

목수, J국악)가 지원했으며, 2차 공모는 3-4개 공동체를 선발해 1개 공동체 당 1천만원 이내에서 창업 단계별로 차등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시제품개발, 마케팅, 역량 강화교육 등으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3인 이상 구성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2/3는 청년(완주군에 주소 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으로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한다. 사업분야는 문화, 복지,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지역개발 등 전 분야에서 가능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완주군청 사회적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발굴돼 청년과 지역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www.wanju.go.kr) 고시공고 및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200-32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2020년 행안부 '인구감소 지원 공모사업'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인구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금번 행안부 공모사업은 지역인구감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청년층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정착과 지역활력을 위해 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31개 시·군이 지원하였으며, 서면심사와 현지조

사 PT발표 등 3차에 걸쳐 엄정한 심사를 벌인 결과 김제시를 포함 10개 시·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국비(특교세) 9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특히 김제시가 금번에 공모한 "젊어지는 농촌, 청년창업(농부) 지역정착 솔루션"사업은 행안부 심사에서 청년농 대상 맞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상품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청년 창업농 맞춤형 멘토-멘티 결연

50팀, 청년농 역량강화, 창업동아리 구성·상품개발 10팀, 메이커 페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지속되는 인구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 및 창업에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국 모범정책을 혁신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김제시의 인구증가 변곡점을 기필코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오상민 의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김영자 의원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도입"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 오상민 의원과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지난 18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협약체결'과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첫번째 5분 발언에 나선 오상민 의원은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실·보은 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에 주어진 권한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수신제가형 지방정부 혁신에 방점을 둔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장 등을 자체단체장이 임명하기 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김제에서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 의원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 자치단체장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 유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필요성으로 2020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도입·운영 중이며 기초단체도 점점 수직적 확산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김제시 또한 운영 혁신과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부시장, 보건소장, 비서실장, 직영공기업,

출자·출현기관과 시장이 임명·승인하는 단체장들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하여 시회와의 협약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이어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김제시는 시내 인구 중심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10대의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과 1개소 4명의 차량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주·정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단속실적 또한 2018년 3,555건, 2019년 3,723건, 2020년 4월말 현재 1,79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법 주·정차량 계도에도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주·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소통도 확보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전국 119개 지자체(전라북도 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진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의 시행이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인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